

유발 하라리에게 답하다

- 유발 하라리의 인류사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응답

김성원 서울신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는 3부작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들였다.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성공비결로 유연한 언어능력, 특히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들었다. 화폐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와 같이 현생인류가 고안한 거대한 이야기들은 현생인류의 거대한 집단을 통일시켜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류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라리의 학자적 탁월함은 장구한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단순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현생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은 그의 지적 모험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인류사 전체를 다루는 하라리의 주장들은 지나친 단순화의 아쉬움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과 제안에서도 오류와 내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의 오류 가운데 중대한 하나가 기독교,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오류이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란 그가 키워드로 삼는 거대한 이야기, 즉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분석에서 기독교는 유럽의 역사를 한 때 지배한 거대한 허구 이야기로, 많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한 지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하라리의 역사관에 대한 필자의 비평을 담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이 비평작업을 통해서 필자는 기독교에 대한 하라리의 오해와 편견들을 지적하고 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학문적 비평작업은 하라리의 역사이해가 가진 내적 모순을 지적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며, 또한 하라리가 제시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제안들에 대한 비평과 대안제시를 포함한다. 저자는 부족하나마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하라리의 학문적, 종교적 노력이 지닌 공헌과 한계를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II. 본론

1. 유발 하라리의 주요 주장들

하라리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자신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그는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인류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호모 데우스』에서는 인공지

능과 생물학기술의 약진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될 현생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며 인간 의식의 계발이라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부작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그는 현생인류가 오늘날 처해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도전들에 대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원인으로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업능력을 든다. 사피엔스들은 그들이 가진 유연한 언어능력, 특히 허구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사피엔스는 교육을 통해서 이 허구를 전수함으로써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라리는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피엔스들의 대규모 협업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으로 농업의 발전이 있었으며, 화폐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적 질서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피엔스들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고 하라리는 설명한다. 그 외에도 숫자의 발명은 개인의 지식적 용량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늘날 현생인류를 결집시키는 거대한 허구 이야기로 하라리는 인본주의를 꼽는다. 3가지의 인본주의가 출현했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였다.

하라리는 그 세 가지의 허구 이야기 가운데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사회주의와 진화론의 거센 도전이 있었지만,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군사력으로 인본주의의 갈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공화국,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칠레가 차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이념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라리는 전망한다. 자유주의의 이념들인 인간의 존엄성은 인공지능의 초지능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개인의 의식과 자유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발달과 판단에 의존함으로 상실된다. 만인의 평등이념은 초인간의 등장으로 깨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의심받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 앞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라리가 볼 때 현생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은 기술인본주의이다. 기술인본주의는 초인간을 창조함으로 알고리즘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다운그레이드하면서 인본주의의 탯줄을 끊을 것으로 하라리는 전망한다. 그 결과 현생인류는 더 이상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믿지 않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강력한 이야기를 하라리는 데이터교라고 부른다. 데이터교는 모든 것을 데이터처리 시스템으로 본다. 인간이라는 종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시스템이고 개인은 칩이다. 만물인터넷이라는 데이터처리시스템이 완수되면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라리는 전망한다.

이처럼 기술문명으로 인한 현생인류의 파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라리는 인공지능의 지능발전에 함몰되지 않도록 인간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계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가 제안하는 의식의 계발이란 무엇인가? 그는 인간의 의식이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행복추구를 단념하고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의식의 계발방법으로 싯달타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빳사나 명상을 제시한다. 불교의 창시자인 싯달타는 행복을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감각의 쾌와 불쾌로 파악했다. 하라리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명상을 통해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행복이란 실상 신체적 호르몬의 작용이며 신체적 감각이기에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의할 것은 하라리가 제안하는 것은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2. 유발 하라리의 학문적 공헌점

하라리의 학문적 작업이 보여주는 첫 번째 공헌점은 그의 학문적 도전의 용기라고 생각된다. 그의 3부작은 현생인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분석하는 역작이다. 그가 이 작업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교차학문적이고 거시적인 방법이다. 그는 오늘날의 복잡다단하고 상호연결된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마치 글로벌하고 복합적인 오늘날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특정한 학제적 연구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현생인류의 역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하라리는 학문과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해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방법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보듯 인류세의 시간을 세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방대하고 대담한 작업에 도전한 하라리의 학자적 노력이 놀랍고, 그의 용기가 돋보인다.

두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분석의 틀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가 요약적으로 설명한 하라리의 분석에서 현생인류의 성공이유, 20세기에 사피엔스를 지배하는 거대담론으로 세가지 인본주의를 제시한 것, 그 가운데 자유인본주의의 승리를 설명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제시하는 두 가지 미래전망들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모두는 일목요연하게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면서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하라리는 현생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이야기들 혹은 이데올로기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학자로서 그는 이 모든 현상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제 3자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비판정신은 그의 작업의 학문적 가치와 공신력을 높여준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하라리의 생생하고 맛깔나는 글쓰기는 그의 저작들을 읽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테슬라가 생산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두가지 모델이 될 것이다. 바로 테슬라 박애주의자와 테슬라 에고이스트이다.”¹⁾ “돌칼이 점차 핵미사일로 진화함에 따라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위험해 졌다. ... 동굴벽화가 점차 티브이 방송으로 진화함께 따라 사람들을 속이기는 더 쉬워졌다.”²⁾ 등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명쾌하면서도 트렌디한 개념과 표현을 통해서 하라리는 자신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1)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107.

2) Ibid. 481.

3. 유발 하라리의 학문적 약점들

1) 하라리의 학문적 주장에 담긴 내부 모순들

그런데, 너무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이었을까? 하라리의 작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과 약점들을 안고 있음을 필자는 보게 된다. 그 첫 번째가 하라리의 분석에 들어있는 여러 모순점들이다. 하라리는 서로 맞지 않는 주장들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하라리의 내적 모순점은 그의 실재관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의 역사관의 키워드인 고통의 실제성과 고통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결론 간의 모순이다. 하라리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주장한다. 허구의 이야기가 지배하는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것은 오직 고통이라고 그는 보았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그의 역사관의 키워드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안의 제시부분에서 하라리는 고통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종교적, 관념적 주장은 자신의 모든 분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인식론에서 발견된다. 하라리의 인식론은 과학적 진리관과 주관적 관념론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으로 하라리는 철저히 자연과학의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자연과학의 사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자연주의 진화론의 주장들을 따라서 인류 역사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다. “40억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다. 지적인 창조자에 의해 설계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³⁾고 그는 쓰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라리는 과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인간에 있어서 영속적인 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반해서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아를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파악하며,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경제적 결정론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불행히도 진화론은 내 진정한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 영혼의 존재는 진화론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진화는 변화를 뜻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쓰고 있다.⁴⁾ 과학조차도 인간의 정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는 인간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상의 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명상이 과학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명상을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과학으로 인정하고자 시도한다.⁵⁾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가 그 전까지 받아들인 진화론적 과학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과학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나? 당신은 중국에 가서 내적 자아에 대한 주관적 관찰에 의지한다.” 이에 대해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내 입장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과학적 관찰은 물리학과 생물학, 역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연구하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자기 말고는 그 누구의 정신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타인의 뇌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뇌는 정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을 연구할 때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⁶⁾

3)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561

4)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150-152.

5)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473.

세 번째로 그의 역사관에서도 우리는 내적 모순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진화론적 변증법적 역사관과 목적론적 역사관 사이의 모순이다. 앞에서 언급하고 인용한 것처럼, 한 편으로 하라리는 철저하게 진화론적 역사관을 따른다. 그러나 하라리는 또한 역사에 방향성 “역사의 화살”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현생인류는 문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생물진화의 방향과는 다른 목적론적 역사관을 제시한다.⁷⁾

하라리에게서 발견하는 네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윤리관에서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윤리관과 제국적 질서에 대한 긍정 사이의 모순이다. 그는 현생인류는 기원 전부터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으며 미래에는 전지구적 제국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제국은 필연적으로 그 신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고통을 주는 메카니즘이다. 더구나 글로벌 제국의 출현은 견제할 다른 제국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로 인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의 사피엔스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가 잊은 것일까? 아니면 수많은 사피엔스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또한 코로나 19 사태에 관해 쓴 글에서 하라리는 이러한 팬데믹 사태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시민감시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고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⁸⁾ 제국의 출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글을 쓴 것일까?

하라리의 주장들이 보여주는 내부적 불일치와 모순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러한 학문적 내부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원인은 그의 2중적 방법론이다. 한 편으로 그는 철저한 자연주의자로 진화론적 과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로 자신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관심을 갖는 종의 운명의 논의를 펼치면서도 인간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인이 겪는 고통의 실재성과 중요성을 놓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의 학문적 주장들은 상호간의 불일치와 모순을 보여준다. 둘째 원인은 하라리가 경험한, 명상을 통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그의 학문적 사고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0년에 위빳사나 명상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꾸준히 명상을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깨달음이 그가 쌓아온 학문적 방향을 전적으로 재해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평생동안 경험해온 고통의 현실성과 그의 의식이 발견한 고통의 비실재성은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다.

2) 하라리의 피상적인 종교이해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는 없다는 인식론적 가정과 선입견의 연장선상에서 하라리는 종교의 진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대신 그는 종교를 철저하게 사회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는 모든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종교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정책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별로 없다.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듯 종교는 걸치장일 뿐이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종교를 기술과 경제의 강력한 힘을 가리는 상부구조 정도

6)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490.

7)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9장을 보라

8) Yuval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 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로 일축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이슬람교 힌두교 혹은 기독교가 근대경제구조 위에 놓인 화려한 장식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장식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도 많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이야말로 역사를 이끄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 불행히도 그런 점에서 전통종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치유책이 아니라 일부이다. 종교는 여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다지고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추가하기보다 해결하는데 이르면 종교가 제공할 것은 많지 않다. 많은 전통적 종교들이 보편가치를 옹호하고 우주적 타당성을 주장해도 지금은 근대 민족주의의 시녀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⁹⁾

하라리는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해 왔으나, 전혀 진리가 아니며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기에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종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에 대한 외부자적 시각이며, 실용주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교리가 가진 진리성을 거부하고 종교를 사회적 이야기 즉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이 하라리의 근본적 문제이다. 종교의 신도들 가운데 가르침에 따르기를 실패하거나 배교하거나 종교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종교의 진리성을 거부하는 필요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마치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군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과학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것의 사실성을 인정한다. 그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허구적 이야기인 불교와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그는 싯달타의 주장들을 과학적인 것으로 정립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하면 싯달타는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들을 가르쳤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종교비판에서 싯달타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하라리의 주장은 그러나 이중잣대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불러온다. 하라리의 주장을 따른다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그들의 추종자들이 만든 교리적인 체계나 윤리적인 오류와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텐데 하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하라리의 피상적인 기독교 이해

기독교에 대한 하라리의 설명을 보면 종교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외부자적, 사회학적 시각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종종 기독교적 개념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류의 인지혁명을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로 표현하며, 수렵채취인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부른다. 또한 사피엔스들의 해외 이주를 “대홍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쩌면 하라리는 기독교의 핵심개념들을 진화인류학으로 설명하려고 은연 중에 시도하는 것 같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하라리는 종교는 허구라는 그의 전제를 반복한다. “기독교 이야기”는 기초가 없는 허구라고 그는 비판한다. 창조자의 아들이 2천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필리오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고 기독교의 교리적 형성과정을 비판하기도 한다.¹⁰⁾ 하라리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태도는 매우 회의적이며 심지어 적대적이기

9)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5.

까지 하다. “희생 영원 순수 구원 이중 어떤 단어라도 듣게 되면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답은 결코 이야기가 아니다.”¹¹⁾

하라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으로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종교적 경전 일반에 대한 그의 비판을 적용한다.

우주의 신비와 세상의 입법자간의 빠진 연결고리는 흔히 어떤 신성한 책이 제공한다. 이 책은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규제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주의 신비 탓으로 돌린다. 신도들의 설명대로라면 그 책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신이 지었다... 우리가 아는 최선의 과학 지식에 따르면 이 모든 성스러운 텍스트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호모 사피엔스가 쓴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선조가 사회규범과 정치구조를 정당화하려고 발명한 이야기일 뿐이다.”¹²⁾

하라리가 볼 때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는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야기 능력이 뛰어난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허구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하라리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보면, 기독교는 오히려 하라리가 요구하는 사실성과 진실성을 드러낸다. 기독교는 하라리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하라리 당신이 유일하게 진실과 사실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고통이 아닌가? 당신은 인간이 겪는 고통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체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알고 싶다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¹³⁾ 그렇다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의 주인공 가운데 가장 고통을 느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극복할 길을 찾아 명상하고 고행한 싯달타 당신 뿐이었을까? 오히려 세상의 악과 인간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싯달타처럼 고통을 피할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졌던 것이다.” 기독교는 하라리가 인정하는 고통의 실재성을 어떤 이야기보다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그는 기독교는 허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4) 하라리의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

하라리는 오늘날 인류를 지배하는 허구 이야기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꼽는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들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다.¹⁴⁾ 그러나 하라리의 문제의식은, 이들 자유 인본주의의 강령들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영혼, 자유의지, 자아 같은 것은 없으며 유전자, 호르몬, 뉴런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달과 그에 대한 사피엔스들의 의존은 이러한 주장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 종족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을 피하기 위한

10)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425.

11)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장 의미를 보라

12)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97-98.

13) Ibid. 464.

14)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386.

대안으로 하라리는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계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상의 길은 지금까지 하라리가 따라온 진화론적 과학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라리가 시도하는 명상의 길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것은 싯달타가 제시한 명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라리는 싯달타로부터 전수되어 왔다고 하는 위빳사나 명상을 수행한다. 하라리는 고엔카 (S.N. Goenka)에게서 위빳사나 명상을 배워왔다. 고엔카는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행복을 생물학적 감각의 쾌와 불쾌로 파악하며, 행복이란 실상 신체적 호르몬의 작용이며 신체적 감각이기에, 수행자는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⁵⁾ 다시 말하면 행복이나 불행의 실상이 인간의 감각이 촉발하는 느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각을 통제함으로써 이것을 뛰어넘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지능이나 인식이 아닌 정신에 도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성이나 지식의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종교의 보편적 특성이자 불교적 수행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싯달타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인간관은 주관도 의식도 자아도 실상은 없다는 것이다. 하라리의 다음 글은 그가 싯달타의 인간론에 근접한 생각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내디녀야 할 결정적인 걸음은 ‘자아’야말로 우리 정신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지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재작성하는 허구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시대가 되어 이런 개인의 신화제조과정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의 일부야말로 우리 정신이 하던 일을 컴퓨터에 아웃소싱한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자기 내면에서 하는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 몸과 마음의 실제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이성의 많은 개입 없이도 그리고 자신의 아무런 지시없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¹⁶⁾

여기에서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따라 자아라는 것도 결국은 가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라리는 이와 별개로 인간에게 있는 불멸의 의식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멸의 의식이야말로 인공지능의 신적 능력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가 볼 때 하라리는 여전히 자유주의적 인간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라리가 진정으로 싯달타의 인간론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통일성을 보았을 것이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동일성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0과 1로 명멸하면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이란 싯달타가 볼 때 인간의 감각의 작동방식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라리는 이러한 동일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라리는 이러한 동일화가 현생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며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

15)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540, 544, 558. 고엔카가 가르친 위빳사나 명상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윌리엄 하트,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을 참조하라.

16)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장 의미를 보라

능의 찰라적인 작동방식은 하라리가 명상에서 발견한 인간의 감각의 작동방식과 동일하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하라리의 선입견은 다름아닌 그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관점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라리는 명상속에서 평정심을 찾은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며,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 마치 뉴에이지 명상이 힌두교의 명상을 자아중심적인 서구버전으로 개조했듯이 하라리가 수행해 온 위빳사나 명상 역시도 불교 명상을 자아중심적인 서구버전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하라리 자신이 “서구의 뉴에이지 운동은 불교의 통찰을 처음 대했을 때 이를 자유주의적 용어로 바꿔버렸다”며 인도종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자아중심적 해석을 비판하지만¹⁷⁾ 그도 여전히 서구인의 개인주의적, 자아중심적 한계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야말로 하라리가 그의 학문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던 하라리의 학문적 작업 속에 있는 내적 모순과 긴장을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힘을 얻은 하라리는 그의 학문적 작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본주의의 힘과 인간의 고통의 실재성을 변증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좀 더 심오한 주장을 동시에 슬로건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라리의 인간관의 관점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인간관이 가진 한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의 한계는 공동체성의 결여이다. 오늘날 서구 문명과 정치 경제체제가 위기에 처한 원인은 바로 자아중심성이다. 자아중심성은 이기심으로 나타나며 정치적 경제적 독점주의로 나타나며 다원주의와 동일하게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점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인류의 다수가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리의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중심성의 바탕에는 인본주의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즉 인간중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라리가 지적하듯이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¹⁸⁾ 그러나 인본주의가 기독교의 탭줄을 끊어버리고 독립하게 되자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이라는 평등성의 의무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국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유 인본주의의 위기는 인공지능 과학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내적 모순과 한계로부터 태생적으로 오는 것이다.

5) 하라리에게는 미래의 사피엔스를 위한 대안이 없다.

3부작을 통해서 하라리는 그가 내다보는 미래가 가져다줄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인류는 이제 최소한 그런 적수 셋 - 핵전쟁, 기후변화, 기술적 파괴-을 앞에 두고 있다.”¹⁹⁾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제나 군사의 장에서 인류를 퇴출시켜 무용한 존재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법은 인류가 전지구적 협업으로

17)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559.

18)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327-328.

19)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193.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개별국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해결하기에 올바른 틀이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 우리의 정치를 지구화해야 한다.” 부족단위의 국가들이 국가 단위의 생각을 극복하고 모든 인류가 닥쳐오는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라리가 세계정부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 ‘세계정부’를 수립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이다. 그보다는 한나라나 심지어 도시 단위의 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전 지구차원의 문제와 이익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이다.”²⁰⁾ 이렇게 보면 하라리는 인본주의가 주장해온 인류의 동질성과 인류애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하라리의 글 가운데서는 이러한 성공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그 한 예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인류를 파괴하는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라리의 이러한 요청은 그 자신의 다른 주장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신빙성과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첫째로, 하라리가 제안하는 인류차원의 협업은 그가 전망하는 또다른 원리와 부딪친다. 그는 인류가 자유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는 자유주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²¹⁾ 하라리가 전망하는 것처럼 인류가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 공조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안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섬나라들이 물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수많은 인류가 경제계에서 퇴출 되더라도 플랫폼 기업들과 초부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손익을 우선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류에 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의 그 산물인 개인주의는 결코 인류를 진정으로 결속시킬 수 없다.

하라리의 전지구적 협업 제안이 자기모순적인 것은 제국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역사를 돌아볼 때 발견하는 것은 사피엔스의 대규모의 협업은 반드시 거대한 허구 이야기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이러한 허구 이야기를 통해서 결속되어 왔다고 그는 체계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차원의 협업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예상되는 거대한 이야기, 즉 체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글로벌 제국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기원전 200년경 이래로 인간은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다.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제국은 진정으로 세계적인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환상이 실현될지도 모른다.”²²⁾ 그런데, 동시에 하라리는 앞에서 인용한 제안에서 세계정부의 설립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국의 체제를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하고 필연적인 발명품이라고 과감하게 옹호한 하라리가 막상 세계정부의 출현 앞에서 망설이는 것은 제국의 독재 시스템이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정부 시스템의 출현을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으로 폄하한다. 그의 제안은 모순적이다.

하라리가 미래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두 번째 해법은 명상을 통해 지능과 구별된 인간의 의식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구별된 인간의 정신의 영역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하라리 자신이 명상을 통해 무의미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20) Ibid

21) Ibid. 1장 환멸 부분을 보라

22)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11장 제국의 비전 부분을 보라.

인류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쓰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²³⁾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명상의 길을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노력의 한가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우리는 명상을 통한 정신연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 우리 자신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할만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를 위한 그의 여러 21가지 제안 가운데 마지막 제안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 역시도 그의 다른 주장들과의 모순으로 인해서 설득력을 잃는다. 그의 개인사의 키워드는 고통이었고 그가 역사를 보는 눈도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의 관심은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줄여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명상을 통해서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고 제거해 나가는 정신적 수양의 노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정확히 관찰하면서 고통의 근원이 많은 기대와 욕망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행복이란 단지 우리 몸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헛된 기대와 욕망을 줄여나감으로써 그 결과물인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제안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고통은 실상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싯달타의 깨달음이며, 싯달타의 명상을 따라하려는 위빳사나명상의 결론이다. 인류의 고통의 역사를 추적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현생인류를 위협할 핵전쟁의 고통은 무엇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인간의 소외와 비인간화의 고통은 무엇인가? 오히려 하라리는 이러한 위협들이 실재하지 않는 허구임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 하라리는 싯달타의 궁극적 깨달음을 받아들여 인간의 자아 자체가 온갖 신호로 이뤄진 순간적이고 허구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의 찰라적인 신호체계가 다른 아닌 인간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차별화하고 벗어나기 보다는 거기에서 삼라만상이 동일한 것임을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사피엔스들이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하라리가 제안하는 두가지의 길은 자기모순 가운데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유발 하라리의 제안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

이제 필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라리의 제안들을 보완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하라리가 첫째로 제시한 대안인 전지구적인 협업에 관해 보완점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하라리는 인류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구적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전지구적인 제국의 출현을 예측하면서도 그 거대한 제국의 지배가 인류에게 미칠 고통을 예상하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기독교의 세계관이야말로 사피엔스를 통합시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

23)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21장 명상 부분을 보라.

기독교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평등하다는 인간관이다. 하라리가 자신이 인정했듯이 인본주의의 인간평등 인간존엄의 사상은 그 기원과 바탕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하라리가 싯달타의 가르침을 불교의 사회적 역사적 행태와 구별하듯 말이다.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를 주목한다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는 없다. 그가 서있고 다수의 현생인류가 서있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모든 중요한 가치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할 때 인본주의는 미래의 도전들을 함께 맞이할 분명한 근거를 갖게될 것이다.

기독교의 인간관 가운데 또 한가지 하라리가 알아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집단도 아니다. 단지 본능인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현대 인본주의 세 갈래인 개인주의적, 사회주의적,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모두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 하라리의 오해와 실패가 있다. 하라리는 인간을 자유로운 개인으로만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개인주의는 그가 불교적 명상에 귀의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의 치명적인 오류이다. 하라리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본주의의 오류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이것을 기독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사랑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된다. 이러한 인간관을 오해하고 분해시켜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동물적 인간관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인간관은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의 오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자유란 인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구속받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만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의 극히 일부분이다. 참된 자유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조건이며 능력이다. 인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인격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결코 자유를 사랑과 공동체와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인본주의는 그러나 벗어날 자유,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을 배타적으로 섬길 자유에만 주목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오해였고, 이러한 오해를 그대로 철학화한 것이 근대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이었다. 니체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극단이었다면, 그것을 비교적 온건하게 주장한 사상가들이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이었고 경제사상가 아담 스미스였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자유론을 따라가는 호모 사피엔스들은 인간소외와 인간착취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으로 보는 것도 인공지능의 도전 앞에 있는 현생인류에게 본질적인 도움이 된다. 하라리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의 본질을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는다. 그러나 하라리가 시도하는 지능과 정신의 구분은 모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하라리가 제시하는 것처럼 정신의 자기발견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체의 물질적 대사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지를 주장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이해한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영적 본질은 너무도 쉽게 인공지능의 전기적 신호나 지능적 탁월성과 분명히 구별되며 호모 사피엔스의 본질을 다른 동물들과도 구별할 근거가 된다.

기독교의 윤리관 또한 이러한 공동체적 인간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기독교의 윤리 또한 하라리가 주목하고 현생인류가 미래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관은 인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인 개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나. 마르크스주의나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문화권의 윤리인 집단주의의 끔찍한 한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발성과 인격적 존중을 옹호한다. 거기에는 강압성과 폭력성의 자리는 없다. 또한 기독교 윤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르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며, 악을 미워하신다. 하라리 이상으로 합리주의자였으며 과학의철학적 기초를 정립한 임마누엘 칸트가 윤리의 참된 가능성을 고뇌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윤리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의 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하라리가 강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이다.

그리고 하라리와 현생인류가 꼭 주목해야할 인간관적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함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하라리가 인간이 초래하는 고통의 역사를 파헤치면서도 인간의 본성적이고 보편적인 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놀랍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악과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결함이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악함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간과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놓치는 것이다. 현생인류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세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라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악과 고통을 일종의 무지로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는 죄와 악 역시도 허구라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자신의 삶이 그의 사진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참으로 선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 같은 학자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자가 저지르는 죄와 초래하는 고통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의 베스트셀러 책에 담긴 진단과 처방이 필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면? 이러한 학문적 오류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손해와 심지어 해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책에서 제시한 모든 시나리오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이런 가능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²⁴⁾는 셀프 면책표현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한계로 인해 죄를 짓는다고 가르친다. 고통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타인이 저지른 죄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하라리가 주목하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다.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 만큼 사랑을 떠난 인간 실존과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강조한다. 싯달타가 본 고통에 찬 세상의 모습은 정확했던 것이다. 그러나 싯달타나 하라리와 다르게 기독교는 그 원인인 죄를 직시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에 넘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어떤 대안을 주는가? 기독교는

24)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542.

이 많은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기독교는 고통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고통의 원인인 인간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인간과 만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이것을 해결한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2천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마을에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가족을 섬겼으며 30세 경에 3년 정도의 기간동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과 죄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가르치시다가 종교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체포되었고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극형으로 죽음을 당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시험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며 선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셨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재판을 받고 무고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고통을 제거해 나가게 된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죄와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처방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라리가 깊이 공감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분은 인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경험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다. 싯달타가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목격자라면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온 몸으로 체험한 분이셨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다른 사생아로 인식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버림을 받을 뻔 하였다. 그는 길 옆에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곧이어 그를 죽이려는 살해의 위협을 피해 예수님은 이방의 땅 이집트로 부모를 따라 도망하셨다. 그가 다시 귀국했을 때에는 변방의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 목수로 노동일을 하셨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시험 받기 위해 40일 밤낮을 굶으셨다. 그는 사탄의 강력한 시험과 유혹을 목숨을 걸고 견디어 내셨다. 그는 결혼의 행복을 포기하시고 독신으로 사셨다. 그는 집 한칸이 없으셨다. 그는 순회 전도자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셨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고 산헤드린 국회에서는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가까운 제자인 유다의 배신으로 밀고를 당하고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렸다. 그는 정식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간계로 억울하게 로마의 반역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로마군의 채찍을 맞았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형장에서 결국 사형을 당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았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는 얼마였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그 결과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을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보다 사랑의 문제를 우위에 놓는다. 따라서 기독교의 강조점은 개인의 고통의 해결이 아니다. 그보다는 타인과 세계의 고통을 짊어지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예수님

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비유하셨다. 한 생명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특성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제자들은 타인을 위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사형을 당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 처형되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자신들의 고통의 제거가 아니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하라리는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호모 사피엔스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언제 도래할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보편적지능 (AGI)를 갖는 순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호모사피엔스는 소위 강한 인공지능에 어떠한 관점, 어떠한 행동의 원칙을 코딩해야 할 것인가?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원칙이면 충분할 것인가? 그렇다면 악한 인간의 악한 도구로써 가공할만한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아니면 개인주의적 인본주의 원칙일까?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 인공지능은 생각만해도 무섭다. 호모사피엔스가 인공지능에게 판단과 행동의 기본으로 코딩해야할 원칙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체는 다른 개체들을 돌보는 존재이다.” “자유는 돌봄과 섬김의 조건이자 수단이다.” “다른 개체에게 나의 판단이나 결정을 강요하지 말라”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경외하라” 이러한 윤리적 원칙이 호모 사피엔스와 인공지능 모두에게 필요한 미래 공존의 윤리가 아니겠는가?

III.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학적 작업에 대한 비평을 시도해 왔다. 현생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려는 그의 학문적 작업은 매우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문의 분야를 다루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하라리의 작업은 우리에게 현생인류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이 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중요하고도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뛰어난 학문적 공헌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작업의 곳곳에서 지나친 단순화와 지나친 과학적 유물론의 적용으로 인한 인식의 한계들을 또한 볼 수 있었다. 그 하나가 종교에 대한 그의 피상적 이해이며, 또한 기독교에 대한 그의 피상적 이해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학문적 작업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보게 되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모순들은 그의 학문적 작업의 완성도와 신뢰도에 의문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들의 배후에 있는 그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볼 수 있었다. 하라리가 가진 관점들의 긴장은 그의 학문 전체에 논리적, 현실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기독교가 현생인류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의 주장은 기독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흔들리는 지금 인류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하라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인간관과 윤리관과 세계관이 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도이기도 하다. 고통의 실재성을 고민해온 하라리에게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고통의 실재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고통의 제거를 찾아온 하라리의 구도적 삶의 여정에 기독교는 고통의 근원인 죄를 제시하며 또한 그것의 진정한 극복의 길을 보여준다. (끝)

<인용도서 목록>

윌리엄 하트, 담마코리아 역,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서울: 김영사, 2017.

유발 하라리,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사피엔스』, 서울: 김영사, 2015, 2018.

유발 하라리, 전병근 역,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서울: 김영사, 2018.

Yuval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 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유발 하라리에 답하다: 유발 하라리의 인류사 분석 과 전망에 대한 기독교적신학의 응답	발표자	김성원
		논찬자 (소속)	박찬호 (백석신학대학원 교수)

김성원 교수의 논문은 하라리의 3부작을 중심으로 하라리의 주요 주장들을 소개한 후 그 공헌점과 학문적 약점을 소개한 후 기독교적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발 하라리는 중세 전쟁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이다.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어떻게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진화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0만 년 전 지구상에는 호모 사피엔스뿐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 종이 살고 있었다. 이후 호모 사피엔스는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신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사피엔스』라는 책의 부제는 “인류의 간략한 역사”이다. 2011년 『사피엔스』에 이어 2016년에 쓴 『호모 데우스』의 부제는 “미래에 대한 간략한 역사”이다. 그런가하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2018년에 출간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모 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간이 신이 되려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고 있다. 분명 『호모 데우스』나 유발 하라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분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발 하라리는 말하자면 세속 유대인이다. 거기에 동성애자이기도 하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서 더 나아가 신이나 종교는 허구라고 간단하게 치부해 버린다. 그런 부분에서 도무지 그리스도인들과는 접착점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인류의 역사는 한 마디로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었다. 이제 인류는 불멸, 행복, 신성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하라리에게는 실리콘벨리가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다. 실리콘벨리의 첨단기술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신과는 별 관계가 없고 기술과 관계 있는 용감한 신흥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신흥종교들은 기존의 종교들이 약속한 모든 보상(행복, 평화, 번영, 심지어 영생까지도)을 사후에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곳 지상에서 기술을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논찬자는 하라리의 3부작 가운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읽지 않았다. 그래서 위에서 개진한 내용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제외한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두 권의 책을 통해 파악한 하라리의 주장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라리가 인간식식의 계발방법으로 싯달타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빠사나 명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하라리는 종교로서의 불교를 재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신학자로서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모니터링하고 따라 잡고 있는 김성원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많은 배움이 있음을 밝히며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논문에서는 3가지 인본주의 가운데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승리했다고 하라리가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논찬자의 기억으로는 하라리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하라리는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도 다소

관대하게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논찬자는 받았고 미국 독립선언문의 문구도 진화론적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하는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이들은 변이가 가능한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가 포함된다”(『사피엔스』, 165).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명상에 대한 주장은 하라리가 그 전까지 받아들이던 진화론적 과학의 틀을 벗어나는 주장이라는 비판은 정당해 보인다. 비록 하라리 자신은 자신의 입장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교나 영성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폄하하면서도 모종의 유사 영성적인 것에 의지하고 있는 하라리를 비롯한 이들 자연주의자들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하라리의 주장들이 보여주는 내부적 불일치와 모순에 대해 김성원 교수님은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원인은 그의 이중적 방법론인데 하라리는 철저한 자연주의자로 진화론적 과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인은 이른바 하라리가 경험한, 명상을 통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학문적 사고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감 교수님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하라리의 주장이 지니는 내적인 모순을 잘 드러내 준 것으로 보인다.

4. 하라리의 제안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독교가 현생인류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 면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설명은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고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죄송한 말이지만 같은 학자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자가 저지르는 죄와 초래하는 고통도 있다는 것이다”는 표현은 논문에서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작년 팬데믹과 관련한 논문에 대한 논평을 하며 복음주의신학자들뿐 아니라 진보적인 신학자들과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유발 하라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때 논찬자가 느낀 것은 복음주의신학자는 책도 읽지 않고 책 제목을 시비삼아 매우 막연하게 비판하는 모양새였다면 진보적인 신학자는 하라리의 책을 읽고 논점이 분명한 비판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김성원 교수의 논문은 복음주의신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리의 주장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을 제시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진리를 천착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여러 동향에 대해 깨어있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김성원 교수님의 학문적인 노고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논찬을 갈음하고자 한다.